

추도사

효일당(曉日堂) 범행(梵行) 큰스님!

호탕한 범문으로 후학들을 이끌어 주시던 스님께서 세연을 접으시니, 오늘 이곳을 굽어보는 수정봉과 속리산의 연봉들이 마치 은산철벽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원 슬픔이 어디 이곳 범주사만의 것이겠습니까. 60여 성상 동안 감화를 입은 모든 사부대중이 스님의 법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슬픔을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없는 정진과 교화를 불은에 보답하는 길로 삼으셨지만 종단이 어려울 때는 어떠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결과 종단 정화가 이루어지고 불국사, 봉은사, 동화사, 수덕사 등이 지금과 같은 대가람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가람이 정비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불연이 이어져 교화의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큰 신심으로부터 수행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기에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忿心)으로 수행에 매진하라는 일러주셨습니다. 깊은 연못처럼 침잠하시며 설법을 청하면 신통치 않다고 마다하셨지만 한번 법을 설하시면 그 호탕탕한 범문 속에서 법의 진면목을 드러내시니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한 생을 버려서라도 안되면 누생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닫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다가온다’시던 가르침은 스님의 불은으로 삼아 후학들이 정진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대중에게는 언제나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흉악하게 되니 언제나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 것을 당부하셨고, 출가 대중에게는 세상사에 매어 있지 않기에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바른 말을 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정수행 가풍을 일깨웠던 정화운동의 정신이 흐려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으니 지난 60여 성상은 이와 같은 정진과 교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당대의 대선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누생겁의 복이라 여기어 일생동안 불은에 보답하고자 후학들 앞에서 수행과 교화를 놓지 않았으니, 후학이 받은 스님의 불은 만으로도 이미 누생겁에 걸친 서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절 살림에도 군법당을 건립하고 청소년 교화에 앞장 서신, 불교의 미래를 위한 헌신은 더없는 귀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범행 큰스님!

이제 청정하고 깨끗하며, 번뇌가 없는 그 범행(梵行)을 통해 위없는 보리도를 성취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멀었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요해 얻을 것이 없는 그 경지에서 노닐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리도 또한 취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으며, 머물 것도 없는 것이니 크나큰 누생의 서원 여의지 마시고 가르침을 기다리는 저희 중생들에게 다시 한 번 그 호탕한 범문을 들려주옵소서.

불기2556(2012)년 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